



제117주년
현도기념

포덕 163(2022)년 12월 1일

제 117주년

顯道기념



포덕 163년 12월 1일

 천도교중앙총부

차례

식순 03

기념사 04

천덕송_제13장 기념송 10

천덕송_포덕행진곡 12

의암성사 법설_ 권도문 13

현도기념식 식순

1. 개 식

1. 청수봉전

1. 심 고

1. 주문3회병송

1. 경전봉독_ 권도문

1. 천덕송 합창_ 제13장 기념송 / 1절-3절

1. 기념사

1. 천덕송 합창_ 포덕행진곡 / 1절-3절

1. 심 고

1. 폐 식

[현도기념 행사]

- 강의
- 다함께 수련

기 념 사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덕 46(1905)년 12월 1일 의암성사님께서 동학을 천도교로 세상에 널리 선포한 지 117주년이 되는 현도기념일입니다. 성사님께서서는 수운 대신사님께서 학(學)으로 말하면 ‘동학’이요 도(道)로 말하면 ‘천도’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천도’에 ‘교’를 붙여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천하 하셨습니다. 뜻 깊은 현도기념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의암성사님의 유시(遺詩)를 깊이 음미해 보아야겠습니다.

쇠 몸인들 어찌 덤지 아니하리오.

세 번 나누고 합하는 연분을 지으니

늪은 용은 폐택으로 돌아가고,

철새는 가을 한울로 보내네.

손을 잡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니

이별하는 말인들 어찌 선명하리오.

앞 길에 더욱 어려움이 많으리니

뒷일을 여러 어진이에게 맡기노라.

이 시를 읽노라면 의암성사님의 파란만장한 일생이 떠오르고, 천도교의 앞날을 걱정하시는 그 마음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의암성사님이 맡기신 뒷일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스스로 부끄러워집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우리는 의암성사께서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으시고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희망의 등불을 밝히신 현도(顯道)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지혜와 용기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의암성사님께서 동학농민혁명으로 교인들의 엄청난 희생과 해월신사님까지 순도하신

최악의 위기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 등 북방 포덕에 힘써서 교세를 더욱 더 키우셨습니다. 또한, 이용구의 배신으로 동학이 친일의 누명을 쓰고 민중으로부터 외면당할 처지에 있던 절박한 시기에 이용구 일당을 출교(出敎)시키는 한편,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천하 하여 동학혁명 이후 숨죽이고 있던 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주었습니다. 이러한 위기극복의 리더십과 과단성(果斷性), 용시용활(用時用活)의 혜안이 이 시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의암성사님은 일본에 체류하시면서 세계의 큰 흐름을 살펴보고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새로운 국가비전과 실천전략을 구상하고 기획 하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삼전론』,『명리전』,『준비시대』등의 법설을 통해 보국안민과 포덕천하, 광제창생의 길을 제시하셨고, 교인들의 식견과 안목을 길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암성사님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혁신적 리더십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또한 의암성사님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일본 유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셨고, 수많은 학교를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육사업을 펼치셨습니다. 이렇게 육성된 인재들이 나중에는 교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인물이 되

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니다. 인재가 없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의암성사님의 인재육성책을 본받아 인재를 키우려는 노력과 인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앙총부에서도 전국적인 인재풀을 구성하여 교회사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의암성사님과 선열들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주역이 되셨고, 청사에 빛나는 3대 혁명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갑오동학혁명과 갑진개화혁신운동, 그리고 기미3·1독립운동이라는 3대 혁명은 세계사에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혁명이란 한 번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의암성사님과 선열들은 세 번이나 혁명을 단행한 위대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위업(偉業)을 이룬 의암성사님과 선열들의 성령은 우리 후학들의 심령과 융합되어 있고, 우리들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의암성사님과 선열들처럼 우리 앞에 놓인 위기와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이룰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올해 중앙총부에서는 의암성사 순도.순국 10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추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의암성사 순도 100주년을 기념 유품·유물 전시회”를 근현대사기념관에서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의암성사의 사상을 선양하고 추모하기 위한 학술대회도 여기저기에서 열렸고,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주최한 ‘인내천 서□예 명인 모심전’에서는 의암성사님 법설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더하여 의암성사님의 생애와 사상을 교육하는 콘텐츠 개발과 영상 제작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총부에서는 3.1독립운동과 봉황각을 연결하여 의암성사님의 진면목을 드러내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민족공원 조성을 위해 모든 힘을 다 할 것입니다. 교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이제 올해도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아직도 유행하는 코로

나19 상황 속에서 건강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제117주년 현도기념일을 맞이하여 의암성사님께서 은도시대를 마감하고 현도시대를 열었던 그 업적을 되새기며, 우리 동덕들 모두 한마음으로 동귀일체(同歸一體)하여, 현도운동을 전개해 나아가며, 교단중흥을 위해 더욱 정진하여, 앞으로 도래할 정당삼월(正當三月)⁰¹⁾을 힘차게 맞이하자는 당부를 드리면서 기념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포덕 163(2022)년 12월 1일

천도교 교령 박 상 중 심 고

01) 『무하사』에 나오는 정당삼월을 의미

제13장 기념송

1. 천 - 은 이 망 극 하 여 경 신 사 월 초 오 일 에
 2. 한 - 올 님 하 신 말 씀 개 - 벽 후 오 만 년 에
 3. 나 도 성 공 너 도 득 의 너 회 집 안 운 수 로 다

1. 글 로 어 쨌 기 록 하 며 말 로 어 쨌 성 언 할 까
 2. 네 가 또 한 침 이 로 다 나 도 또 한 개 벽 이 후
 3. 이 - 말 씀 들 은 후 에 심 - 독 회 자 부 로 다

1. 만 고 없 는 무 극 대 도 여 몽 여 각 득 도 로 다
 2. 노 이 무 공 하 다 가 서 너 를 만 나 성 공 하 니
 3. 무 극 대 도 닷 아 내 니 오 만 년 지 운 수 로 다

후렴

기 장 하 다 기 장 하 다 이 내 운 수 기 장 하 다

종 을 시 고 종 을 시 고 이 내 신 명 종 을 시 고

포덕행진곡

1. 우 리 들 - 은 - 개 벽 - 군 신 성 의 특 사
 2. 오 늘 밤 - 은 - 포 덕 - 날 십 이 의 월 일 사
 3. 우 리 들 - 은 - 포 덕 - 창 창 생 지 도 자

수 천 운 선 - 생 - 심 법 - 을 계 승 하 여 서
 운 도 교 - 의 - 큰 문 - 을 활 찝 하 열 고 서
 은 수 있 - 는 - 그 사 - 람 만 나 게 되 면

온 천 하 에 천 덕 을 넓 게 넓 게 퍼 리 라 온 천 하 에 천 덕 을 넓 게 넓 게 퍼 리 라
 살 길 찾 는 창 생 을 길 - 인 도 하 - 자 살 길 찾 는 창 생 을 길 - 인 도 하 - 자
 시 운 시 변 의 논 하 고 삼 - 칠 자 전 - 해 시 운 시 변 의 논 하 고 삼 - 칠 자 전 - 해

포 - 덕 - 은 - 우 리 들 의 천 직 이 로 다
 몸 과 마 - 음 - 다 바 - 처 포 덕 을 하 자
 당 당 정 - 리 - 밝 히 - 어 포 덕 을 하 자

포 - 덕 - 은 - 우 리 들 의 천 직 이 로 다
 몸 과 마 - 음 - 다 바 - 처 포 덕 을 하 자
 당 당 정 - 리 - 밝 히 - 어 포 덕 을 하 자

[권 도 문]

「도」란 것은 사람이 한갓 지켜서 사업만 할 뿐 아니라, 진리를 온전히 체득하여 어김이 없게 함이니, 어찌 삼가지 아니하리오.

사람이 세상에 남에 한울 성품으로 말미암지 아니함이 없건마는 능히 그 성품을 거느리는 이가 적고, 누구나 집에서 살지 않는 이가 없건마는 그 집을 잘 다스리는 이가 적으니, 어찌 민망치 아니하리오.

성품을 거느리니 한울이 있고 집을 다스리니 도가 있는지라, 어찌 한울과 도가 멀다 하리오. 그러므로 한울은 만물을 낳고 도는 일을 낳나니, 어찌 물(物)과 일이 또한 멀다하리오. 물은 일을 낳고 일은 먹는 것을 낳는지라. 어찌 일과 다만 밥을 또한 멀다 하여 어길 바리오. 이러므로 한울이 없으면 생함이 없고, 생함이 없으면 먹는 바 없고, 먹는 바 없으면 일이 없고, 일이 없으면 도가 없을지니라.

이런고로 한울은 화생하는 직분을 지키므로 잠깐도 쉬고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한울이 일부 일각이라도 쉬게 되면 화생변화지

도가 없을 것이요, 사람이 또한 일용지도를 잠시라도 떠나게 되면 허령창창한 영대가 가난하고 축날 것이라. 이리므로 수고롭고 괴롭고 부지런하고 힘쓰는 도는 금수라도 스스로 지키어 떠나지 않거든 하물며 사람이야 이것을 저버리며 떠날 바리오.

두려워하고 삼가함은 더욱 군자의 절중함이라. 군자는 능히 이 사단을 지키어 천도를 순히 함이니, 어찌 삼가지 아니하리오. 대저 천도가 여기에 지날 바 없는지라, 삼가 지킬진저!

우리 대선생님께서 경신 사월 초오일에 강령지법을 지어 사람으로 하여금 한울님 모심을 알게 함이요, 한울님 모심을 알면 가히 써 한울님 말씀함을 알지라, 어찌 의심할 바 있으리오. 사람이 이것을 다 지키면 수심정기 할 것이요, 만일 지키지 못하면 배천 역리함이라.

한울은 사람에 의지하여 변화가 무궁하고, 사람은 밥에 의지하여 만사를 행하는지라, 어찌 도를 멀리 구하며 능히 근본을 깨달아 지키지 아니하리오.

모름지기 사람마다 신령한 마음이 있어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수족이 있어 능히 동정함으로써 만사를 능히 다하여,

마시고 먹고 입는 바는 도시 다른 바 없건마는 그 근본을 알아 지키는 것이 적으므로, 한울을 등져서 영대가 혼미하고 진실로 한울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지라.

군자는 이것을 능히 알고 순히 지켜서 잠시라도 떠남이 없으므로, 영대가 한울같이 신령하고 그 밝음이 일월같고 그 앎이 귀신같아서,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고 일월로 더불어 그 밝음을 합하고 귀신으로 더불어 그 길흉을 합할지라.

근래에 들으니 혹 입도한 지 수삭이 못되어 발령이 되어 스스로 아는 바 있어 능히 도를 통하였다 하니, 진실로 민망하도다. 이같이 발령이 속히 되는 것은 천하 사람으로 하여금 한울님의 가르침을 알게 함이니라.

이와같이 한울님이 가르치시는 이 운수에, 만일 실상을 알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능히 천지로 더불어 조화를 운용할지라, 삼가 지켜 어기지 말지어다. 만일 우리 선생님의 도가 아니시면 어찌 창생을 건지리오. 이러므로 오직 「수명을랑 내게 비네」 하신 것이라.

방금 성령이 현세하여 밝음이 엄숙한지라, 능히 근본을 알아 지키

는 데에는 선생의 밝은 도로써 명하여 가르치심이 있어, 홀로 묘연한 사이에 받음을 알 터이요, 만일 이 이치를 어기는 사람은 만일지공(萬日之功)이 있어도 한울님과 스승님의 가르치심을 받지 못할 터이니, 진실로 애석하도다.

이 몸은 선천이기(先天理氣)로 화생함이요 이 마음은 후천이기(後天理氣)로 받음이라, 이렇고로 세상사람이 한울님을 모시지 아니함이 아니언마는, 후천운수를 알아 지키지 아니하면 한울이 간섭치 아니하는 바, 한울이 간섭치 아니하면 오직 사람의 중함으로도 놀다가도 죽고, 자다가도 죽고, 섰다가도 죽고, 앉았다가도 죽을지라, 이와 같이 죽음이 무상한 것은 그 간섭치 아니함을 반드시 알지라. 만일 지키는 사람도 이 운수의 근본을 알지 못하면, 설령 정성이 지극할지라도 한울이 간섭치 아니할 터이니 깨닫고 생각하라.

이렇고로 「한울님께 복록정해 수명을랑 내게 비네」 하신 바라. 복록은 의식이라 의식은 선천후천이 다른바 없는지라, 밥은 한울님 은혜를 생각하고, 도는 스승님 은혜를 생각할 것이니, 삼가 파혹하여 대도를 순성하라. 은혜를 생각한다 하여도 그 근본을 알아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 어찌 한울님의 감동함이 있으리오. 실상을 알고 지키어 대도 견성하기를 바라노라.

사인여천(事人如天)

사람이 곧 하늘이니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

 **천도교중앙총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우)03147

www.chondogyo.or.kr e-mail webmaster@chondogyo.or.kr

Tel +82-2-732-3956 Fax +82-2-739-4533